

#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마 22:20): 예후드 주화(Yehud Coins)의 무게, 문양, 명각 연구를 통한 페르시아시기 예루살렘 성전의 정치-경제적 상황 재구성\*

최지승(헛볼트리니티대학원대)

## 1. 들어가며

페르시아 시기(BC 539-333) 예루살렘의 정치/종교, 사회적 상황은 구약성경의 증언 외에는 뚜렷이 알려진 바가 없고 그마저도 불확실하다.<sup>1</sup> 게다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속주였던 예후드(Yehud) 내외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고고학적 자료의 빈약함은 이 시기 이스라엘의 종교사이에 있어 가장 혁명적인 사건인 포로 귀환과 이로부터 촉발된 제2성전 재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예루살렘 성전 터(Temple Mount)에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의 한 단락(2.2.2.2, “The situation around the Temple of the post-exilic period in Yehud”)에서 간략하게 다룬 내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연구이다. Jiseung Choi, “*The Theologies of the Poor in the Psalter*” (PhD Dissertation; Aberdeen University, 2022).

1 라이너 알베르츠, 「포로시대의 이스라엘」(배희숙 옮김), (CH북스, 2006), 21-73. 원제는 Rainer Albertz, *Die Exilszeit vor 6. Jahrhundert v. Chr* (Kohlhammer, 2001).

현재 상황 또한 고려할 때, 당대의 사회상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외적 자료들은 인장(bullae), 비문(epigraphs), 무게추(weights), 예후드 주화(Yehud coins) 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이 중 마지막에 집중해 보려 한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남기신 당대 로마 시대 주화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해석은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 주화에 대해서도 일종의 해석학적 실마리를 던져준다. 몇 점 출토되지 않는 예후드 주화들이지만, 시기별로 주화들의 문양과 명각을 일별하여 봄으로써,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의 예루살렘 성전 상황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지배 구도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예후드 주화는 여전히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지만, 헨딘(Hendin)에 따르면, 근래까지 총 41종의 주화들이 발견되었다.<sup>3</sup> 로넨(Ronen)은 선구자적 연구를 통해, 페르시아인 시대 예후드 주화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을 밝혔다.<sup>4</sup> (1) 아테네 주화의 양식을 본 딴 것 (2) 히브리적 문양들을 본 따거나 페르시아 왕의 초상화를 담은 것 (3) 예후드 지역 총독(Pehah)의 얼굴, 이름 명각과 부엉이의 문양이 앞뒤로 그려진 것. 이 주화들은 구약성경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성전의 세겔/게라 무게 단위를 따르는데,<sup>5</sup> 이러한 사실이 갖는 사회-경제학적 의미는 베

2 현재까지의 예루살렘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정리한 강후구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강후구,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4권 2호 (2018년), 202-225; 예루살렘의 핵심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진척이 더딘 것에 비해,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기 상황을 고고학으로 재구성하려는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편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박해령, “고고학적 증거로 본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형성”, 「구약논단」 13권 4호 (2007), 147-169.

3 David Hendin, “Current Viewpoints on Ancient Jewish Coinage: A Bibliographic essay”, *CBR* 11(2) (2013), 257.

4 Yigal Ronen, “The Weight Standards of the Judean Coinage in the Late Persian and Early Ptolemaic Period”, *Near Eastern Archaeology* 61(2) (1998), 122-126.

5 이것은 유다의 무게 단위와 무게 계측 도구들에 대한 클레터(Kletter)의 연구를 통해

드포드(Peter Bedford), 알트만(Peter Altmann), 쉐퍼(Joachim Schaper) 등의 연구를 통해서도 탐구되었다.<sup>6</sup>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대어, 예후드 주화들의 무게와 문양/명각의 시대적 변화에 다시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성경 텍스트의 역사서술과 어떠한 관계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당대의 사회상,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 예후드 주화들이 알려주는 성경 외적 증언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 2. 이스라엘의 경제 체계, 예후드 주화의 등장, 페르시아 시대의 성전 정치

페르시아 시기 이전 고대근동에는 근대적 의미의 화폐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근동의 가치척도의 판단은 오랫동안 무게를 기준으로 한 방식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7</sup> 그리고 일반 경제생

---

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그는 세겔을 재는 무게추(weights)가 거의 일정하게 11.33g이라는 사실을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 제시하면서, 그것이 갖는 사회학적 함의를 잘 다루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하라. Raz Kletter, *Economic Keystones The Weight System of the Kingdom of Judah* (JSOTSup 27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39-140; 20게라를 1세겔로 규정한 출애굽기 30:13과 달리, 페르시아시기 예후드의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24게라가 1세겔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윗글, 101; Ronen, 윗글, 124; Hendin, 윗글, 259.

6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들 학자들의 대표 저서는 다음과 같다. Peter R. Bedford, *Temple Restoration in Early Achaemenid Judah* (JSJSup 65; Leiden: Brill, 2001); Peter Altmann, *Economics in Persian-Period Biblical Texts: Their Interactions with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Persian Period and Earlier Biblical Traditions* (FAT 109; Tübingen: Mohr Siebeck, 2016); Joachim Schaper, *Media and Monotheism: Presence, Representation, and Abstraction in Ancient Judah* (Orientalische Religionen in der Antike 33; Tübingen: Mohr Siebeck, 2019).

7 늦은 포로이전(pre-exilic)시기의 문서가 분명한 신명기 14장 22-27절에는 돈 또는 은(kesef)으로 물건을 사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당대에 '유다왕국의 인장이 새겨진

활의 중심은 물물교환이었다.<sup>8</sup> 국가적 단위에서 금이 달란트와 같은 거대한 단위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보통의 경제활동과 일상에서는 물물교환이 주요한 가치 교환 수단이었다.

일찍이 폴라니(Karl Polanyi)는 고대경제를 분류하면서 재화의 통용에 있어 중요한 종류 세 가지, 즉 상호교류, 분배, 그리고 교환이 있다고 주장했다.<sup>9</sup>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유목 경제 체제에서 물물교환이 주요한 경제 활동이었던 이유는 시장의 규모와 접근성에 있다. 둘 모두가 전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된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시장을 통한 교환보다는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 혹은 부족 간의 교환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sup>10</sup> 폴라니는 여기에 더해 고대의 중요한 경제적 요소 중 하나가 종족 내의 분배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쉴로엔(J. David Schloen) 등은 고대 이스라엘도 분배 경제였다고 주장하였

---

석회암 무게추(Judahite inscribed limestone weights: JILs)가 상당히 이른 시기로부터 표준화되어 사용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 Eckart Otto, *Deuteronomium 12-34: Erster Teilband* (HThKAT; Herder, 2016), 1313; 레이 프리즈, 「성서 속의 물건들」(김창탁/김철홍/박형태/양재훈/장성길 옮김), (대한성서공회, 2011), 441-442. 원제는 Ray Pritz,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BS, 2009); 물건의 가치(value)를 금과 은의 무게로 판단하는 고대의 가치 교환(exchange value)체계는 우르 제3왕조(BCE 22-21C)로부터 연원한 것이라고 철회하는 이야기한다. Joachim Schaper, "Real Abstraction' and the Origins of Intellectual Abstraction in Ancient Mesopotamia: Ancient Economic History as a Key to the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Marx's Labor Theory of Value", Jürgen Renn/Matthias Schemmel (eds.), *Culture and Cognition: Essays in Honor of Peter Damerow*, 67-74. <http://mprl-series.mpg.de/proceedings/11/>

- 8 브레머는 예후드 인장(Yehud stamp seals)과 은전(silver coins) 연구를 통해 당대의 경제 구조가 화폐와 물물교환이 뒤섞인 형태였음을 밝혔다. Johannes Bremer, *Wo Gott sich auf die Armen einlässt: Der sozio-ökonomische Hintergrund der achämenidischen Provinz Yehud und seine Implikationen für die Armentheologie des Psalters* (BBB 174; Göttingen: V&R, 2016), 252.
- 9 Karl Polanyi, *The Livelihood of Man*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57-72.
- 10 Polanyi, 앞글, 55; 더글라스 나이트, 「고대 이스라엘 문화」(임미영 옮김), (CLC, 2014), 268. 원제는 Douglas A. Knight, *Life in Biblical Israel* (Westminster John Know Press, 2001).

www.kci.go.kr

으나, 반론이 적지 않았다.<sup>11</sup> 단순히 분배만으로 고대의 경제 활동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경제 체계의 발전에 대한 분석이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므로, 우리는 물물교환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교환 방법이었음을 기억하는 선에서 이 문제는 갈음하려 한다.

바벨로니아 포로기에도 생활비 지급은 여전히 물품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째에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다의 즉위한 해의 12월 27일에 (왕하 25:27) 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후 그의 행적은 자세히 언급된 바가 없지만, 그의 지위가 높여지게 되었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왕과 함께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왕하 25:28-30). '여호야긴 점토판'(Jehoiachin's Rations Tablets)으로도 불리는 VAT 16378에는 아마도 여호야긴이 풀려난 뒤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왕으로부터 받았을 기름의 양이 기록되어 있다.<sup>12</sup> 이 점토판에는 전쟁 포로로부터 왕가에 의탁하고 있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왕으로부터 필수품(subsistence)으로서 보급 받은 기름의 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당대에 화폐 이외의 생활필수품이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알려준다.<sup>13</sup>

주화는 페르시아시기 중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 시기 예후드 지역에서 일어난 사상적, 종교적 발전과 더불어 혁명적인 전환 중

11 이와 관련한 더 상세한 문헌목록은 나이트, 윗글, n.190을 참조하라.

12 ANET, 302.

13 기름이 포로기 이전 일상생활에서 화폐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기사는 왕하 4장에 나온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제자의 아내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한 후 기름으로 그 모든 그릇을 채우게 하는 이적을 펼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왕하 4:1-7),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도록 했다는 기록을 미루어 볼 때 기름이 통상적인 용도 이외에 다분히 경제적 역할에 이용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금속화폐의 최초의 적용은 그리스였는데,<sup>15</sup>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페르시아는 이 주화제도를 도입하였다.<sup>16</sup>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물물교환을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세기가 걸린 긴 역사적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것이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역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페르시아 시대의 예후드 주화는 순전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후드 주화가 예후드 이외 지역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17</sup> 즉, 예후드 주화는 전적으로 예후드 지역 안의 모종의 이슈를 위해 주조되었고 사용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후드 주화는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 지역에서 제사장정치체제(hierocracy)의 형성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다시 말해, 주화에는 반 세겔 혹은 1/3세겔의 성전세(출 38:26; 느 10:32)와 관련하여 성전을 둘러싼 공동체의 역학구조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알베르츠는 성전세가 포로후기 공동체에서 성전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개혁가들에 의하면 희생제의에서 배제된 레위인들은 새로운 세금, 곧 땅에서 생산되는 것의 십일조를 직접 생계비 몫으로 받아야만 했다(민 18:20-32; 느 10:38; 참조, 13:10-13). 그리고 나면 그들은 그것의 십일조를 다시금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했다. 공식 제의를 항구적으

14 Altmann, 윗글, 100.

15 윗글, 97-98.

16 윗글 100-128.

17 Hendin, 윗글, 260.

로 유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삼분의 일 세겔의 현금 조세(느10:32f. [10:33f.])가, 나중에는 이분의 일 세겔의 현금 조세(출 30:11-16; 참조 마 17:24)가 부과되었으며, 희생제사용 나무는 베트 아보트가 돌아가면서 성전에 바쳐야만 했다(느 10:34[10:35]; 13:31). 이 외에도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이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제사장 규정들이 나중에 초기의 신명기주의적인 규정들과 결합하게 되면서, 성전제의로부터 주어진 소득이 전체 수입의 삼분의 일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에 국가 조세 수입이 부가되었다. 그 결과 성전은 유다 공동체의 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8</sup>

그러나 알베르츠의 재구성에는 불확실한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첫째, ‘성전제의로부터 주어진 소득’이 후대의 제사장정치 강화로까지 이어질 만큼 정치적으로 확실한 재화로서 기능할 수 있었는지, 둘째, ‘국가 조세 수입’이라는 표현에서 ‘국가’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셋째, 만약 그것이 페르시아 속주인 예후드 총독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성전’으로 전달되어서 성전이 공동체의 경제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지 등이다.

베드포드는 유명한, 그리고 그만큼 많은 비판을 받아온 와인버그(Joel Weinberg)의 ‘시민-성전 공동체’ 모델(*Bürger-Tempel-Gemeinde*)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땅이 신의 소유로 인식되었고 성전이 땅을 소유하는 형태로 경제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와인버그의 제안에 의문을 던진다.<sup>19</sup> 당대에 왕이나 가족 단위로 땅을 소유하기도 했음이 여

18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84-185. 원제는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2* (Göttingen: V&R, 1992).

19 Peter Bedford, “The Economic Role of the Jerusalem Temple in Achaemenid Judah: Comparative Perspectives”, M. Bar-Anbar/D. Rom-Shiloni/E. Tov/N. Wazana(eds.), *Shai*

러 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와인버그도 잘 지적한 바와 같이, 땅을 소유하는 형태로 경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sup>21</sup> 이것은 후대에 강력한 제사장 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땅'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제적 매개 이외의 다른 영향력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베드포드는 느헤미야 회고록이 아케메네스 왕조 유다에서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과 대제사장의 권위가 아마도 느헤미야가 총독을 맡은 후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성전 기금이 자발적이었던 일반적인 주장에 반대하면서 알베르츠의 견해를 따르는데, 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해 성전에 대한 특정한 헌금(contribution)을 의무화했다고 주장한다(느 13:10-14, 31).<sup>22</sup>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십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헌금은 공식적인 세금은 아니었지만 도덕적인 의무로 작용했다. 베드포드는 이것을 사실상 '비공식 과세'라고 여겼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지역 공익을 위해 페르시아가 승인한 공공사업이었지만, 재건, 유지보수, 인

---

*le-Sara Japhet: Studies in the Bible, its Exegesis and Language* (Bialik Institute: Jerusalem, 2007), 3-20; Joel Weinberg, *Citizen-Temple Community* (Daniel L. Smith-Christopher trans.), (JSOTSup 151;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7-33.

- 20 J. Renger, "Institutional, Communal, and Individual Ownership or Possession of Arable Land in Ancient Mesopotamia from the End of the Fourth to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B.C.", *Chicago-Kent Law Review* 71 (1995), 308-318; Bedford, 윗글 (2007), 207-230; 마르크 반 드 미에롭, 「고대 근동 역사: BC 3,000년경~BC 323년」(김구원 옮김), (CLC, 2010), 419-420; 431-432. 원제는 Marc Van De Mieroop,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ca. 3000-323 BC)*, 2<sup>nd</sup>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7).
- 21 레 27:14-29은 성전에 땅을 기부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블렌킨썩은 그것이 성전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는데 충분할 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J. Blenkinsopp, "Temple and Society in Achaemenid Judah", P. R. Davies (ed.), *Second Temple Studies, Vol. 1: Persian Period* (JSOTSup 1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50.
- 22 Peter Bedford, "Temple Funding and Priestly Authority in Achaemenid Judah", *Exile and return* (2015), 347.

www.kci.go.kr

건비 등 대부분의 비용은 지역 사회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sup>23</sup> 그러나 베드포드는 페르시아 시대 초기와 중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금 조달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비공식 과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공사에 충분할 만큼 항상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정치적 권한은 약했고, 공식적인 세금을 시행할 권한도 부족했다. 성전과의 연결은 공동체 정체성의 원천이 될 수 있었지만, 공동체의 경계는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sup>24</sup> 구약성경은 재건된 제2성전의 건축 상태가 조악했다는 것과 그것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했음을 기록하고 있다(스 3:12-13; 4:23-24; 6:16-22; 학 2:3, 9).

베드포드는 BCE 400년경 대제사장이었던 예(호)하난(Je(ho)hanan)의 이름이 등장하는 주화에 주목하였다.<sup>25</sup> 초기의 미약한 성전의 권위와 달리 페르시아 시대 후기로 갈수록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가 강화되었다는 하나의 방증이기 때문이다.

407년 엘레판틴의 유대인 공동체가 유다 총독 바가바야(Bagavahya)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정치적 지원을 청원하는 편지에는 ‘대제사장 예(호)하난(Je(ho)hanan)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보낸 이전의 서신 이 언급되어 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이집트에 있는 동료 유대인

23 윗글, 348.

24 윗글, 351.

25 제2성전기의 대제사장과 총독(*Pehab*)의 목록은 성경이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레판틴 파피루스(1911) 등을 포함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목록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크로스(F. M. Cross)는 페르시아기 대제사장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요사닥(BCE 587~), 예수아(570~), 요아킴(545~)과 엘리아십 1세(545~), 요하난 1세(520~), 엘리아십 2세(495~), 요야다 1세(470~), 요하난 2세(470~), 야드두아[요야다 2세](420~), 요하난 3세(395~), 야드두아[요야다 3세](370~), 오니아스 1세[요하난 4세](345~).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Frank Moore Cross, “A Reconstruction of the Judean Restoration”, *JBL* 94(1) (1975), 4-18; 이와 관련한 시각 자료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s://www.bible.ca/coins/Jesus-coins-of-the-bible-Persian-Empire-539-333BC.htm> [2023. 8. 27 기준]

들을 대신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성전 재건을 지지하는 응답은 총독이 권한을 가진 직책이기 때문에 총독에게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대제사장의 이름이 새겨진 주화를 주조한 것은 정치적 권위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요한난(Yohanan)이 명명된 주화와 야드두아(Yaddua)가 명명된 주화 중 가장 초기의 예는 크로스에 의하면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다른 학자들(Spaer, Barag)은 야드두아 주화의 연대를 420년경으로 본다.<sup>26</sup>

알트만은 페르시아시기의 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종합화를 수행하여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sup>27</sup> 그는 페르시아가 BCE 547년에 정복한 리디아 왕국을 통해 금 다릭과 은 시클로이(sigloi, 썸어로 *sgl*) 주화를 이용하게 된 과정을 개괄하면서,<sup>28</sup> ‘다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다릭’이 만들어졌다는 통념과 달리, 그것은 제국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왕궁 궁수’를 주조하여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9</sup> 시클로이는 발견된 대 부분이 마모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페르시아 통치자들은 안정적인 주화의 이념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sup>30</sup>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페르시아 지역 내에서 페르시아에서 발행된 주화만이 통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리스에서 발행된 전통적인 주화들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알트만은 현대적 주화 연구의 선구자 중 하나인 밀덴버그(Mildenberg)의 견해를 따라, 페르시아 제국은 주화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추구하

26 Bedford, 윗글 (2015), 346.

27 Altmann, 윗글.

28 리디아에서의 주화의 사용은 BCE 6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chaper, 윗글 (2019), 189.

29 Altmann, 윗글, 100-104.

30 윗글, 102.

지 않았고, 오히려 연맹으로서의 기능을 추구했다고 해석했다.<sup>31</sup> 후대에 등장하는 예후드 주화가 자체적인 문양과 명각을 사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페르시아의 이러한 유향적이고 관대한 정책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페르시아는 주화의 문양과 명각의 ‘정치적 상징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했고, 전통적인 무게 중심의 가치 판단의 실용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sup>32</sup>

알트만이 다른 학자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예후드 주화와 관련한 성전과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이다. 그는 예후드 주화가 다소 작은 액면가인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지불을 위해 또는 소수의 수령인에게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루살렘 성전이 예후드 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책임이 있었다는 일반적 주장에 회의를 드러낸다.<sup>33</sup> 비스만(Wyssmann)은 당시 예후드에는 상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후드 주화는 성지순례 목적의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알트만은 예후드의 경제 발전이 해안 저지대나 사마리아보다 확실히 늦게 그러나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sup>34</sup> 이집트와의 패권 다툼 중 BCE 380년경 페르시아 군대가 예후드 근방에 주둔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정치적 힘을 과시하기 위해 예후드 주화를 도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31 윗글, 104; 미에를, 윗글, 425.

32 그리스는 이와 달리 주화의 상징성(token value)에 대한 경제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은의 실제 가치(use value)보다 적은 양의 은이 물건의 가치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바빌로니아와 달리 동전의 무게와 순도가 아닌 주화에 새겨진 표식에 따라 화폐로 인정받게 되었다.” Altmann, 윗글, 133.

33 Patrick Wyssmann, “The Coinage Imagery of Samaria and Judah in the Late Persian Period”, Christian Frevel et al.(eds.), *A “Religious Revolution” in Yehūd? The Material Culture of the Persian Period as a Test Case* (Orbis Biblicus Orientalis 267; Göttingen: V&R, 2014), 244–247; Altmann, *Economics in Persian-Period Biblical Texts*, 170.

34 Wyssmann, 윗글, 255; Altmann, 윗글, 171.

다.<sup>35</sup> 그는 예후드 주화는 예루살렘의 재건이나 제사장직의 지배적 영향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도상학적으로 예후드 주화가 아테네와 페르시아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유일신 신앙과는 거리가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sup>36</sup> 당시 예후드의 경제는 농업 생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자립적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자체 주화를 채택한 것은 내부 상업 교류가 상대적으로 발전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당시 예후드의 행정의 중심은 많은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듯이 라마트 라헬(Ramat Rahel)로 여겨지지만,<sup>37</sup> 그는 예루살렘도 내부 경제 교류 시스템에도 참여하는 중요한 문화 중심지로서 부수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sup>38</sup> 정리하자면, 알트만이 성전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적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지배적인 관점은 예후드 주화가 경제적인 이유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페르시아 시대에 오볼이 아닌 게라 단위로 무게를 측정하여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결론이 맞다면, 그룹 내 지리적-그래픽적 공동체 의식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도상학은 성경의 상징(특히 백합)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페르시아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없더라도 경제학이 종교적 공동체 상징의 중요한 영역임을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 이러한 증거를 통해 예후드 주화를 예루살렘과 밀접하게 연관시킬 필요는 없으며, [...] 실제 주조 시설이 예후드 자체에 있었을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원전 400년경 이집트를 잃고 페르시아인들이 무질서한 그 지역을 정복하려는 반복적인 유혹이 주화의 채택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이며, 아마

35 윗글, 173.

36 윗글, 176.

37 필자의 박사 논문을 참고하라(2.2.2.2.3. "Objections to the idea of a temple-centred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in Yehud").

38 Altmann, 윗글, 177.

도 페르시아 시대 말기에 느리지만 꾸준했던 인구 증가 및 교환 증가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 및 주화 증거는 인구 통계 및 농촌 농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시골 지역을 가리키며, 그 중 상당수는 초기 농업 정착지와의 연속성을 보여 주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다.<sup>39</sup>

이렇듯 알트만은 예루살렘이 예후드 주화의 발행에 관여되었을 가능성과 성전과의 연관성은 거의 철저히 부정하면서, 이집트의 상실과 재탈환이 4세기 초 팔레스타인의 경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핵심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후드 주화의 무게가 성전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쉐퍼는 예후드 주화가 순전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는 최근 저서에서 유일신론(Monotheism)의 발전을 추적하며 ‘쓰기/읽기’와 ‘돈을 포함하는 물질문명’의 발전이 종교적 추상화(abstraction)에 문화인류학적으로 기여한 바를 다루었다. 성전과 주화의 연결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알트만과 달리, 쉐퍼는 늦은 포로 이전(late pre-exilic)시기에 주화의 형태가 아니었다라도 화폐(money)의 개념이 이미 유다사회 안에 자리잡고 있었음에 주목한다.<sup>40</sup> 이것은 앞서 각주 7에서 다루었던 신명기 14장 22-27절에 나타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교환의 개념이 고대 이스라엘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견해이다.<sup>41</sup> 그는 나아가 약 BCE 36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후드 주화를 직접 주조하는 역할에까지

39 Altmann, 윗글, 176-177.

40 Schaper, 윗글 (2019), 205-206.

41 윗글, 192.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sup>42</sup> 그의 이러한 견해는 스가랴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샅을 토기장이(yôsēr)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개역개정』)에 대한 토레이(C. C. Torrey)의 해석으로부터 연원하였다.<sup>43</sup> 토레이는 요체르(yôsēr)를 주물공(caster, founder)으로 해석하여 ‘성전에서 은을 녹이는 일을 하는 하급직원’으로 이해하였는데, 쉘퍼는 이것이 페르시아시기에 성전이 은을 주조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문헌적 증거라고 보았다.

예후드 주화의 문양과 명각을 살펴보기에 앞서,<sup>44</sup> 예후드 주화의 무게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성경의 증언(출 30:13; 레 27:25; 민 3:47; 18:16; 겔 45:12, “1 세겔은 20게라”)과 고고학적 증거(1게라=1/24세겔)의 차이도 성전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당대에 예후드를 제외한 주변에서 그리스 오볼/테트라드라크마(tetradrachm, 1/24 오볼) 체계가 일반적이었던 것과는 달리,<sup>45</sup> 예후드에서는 게라/세겔 체계가 사용되었다.<sup>46</sup> 로넨은 이것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세겔은 24개의 더 작은 단위, 즉 게라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게라의 무게는 0.475g이었다. 이는 ‘올빼미’ 문양 주화의 평균 무게(0.48)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기 페르시아 통치 기간 동안 예후드 주

42 윗글, 195.

43 Joachim Schaper, “The Jerusalem Temple as an Instrument of the Achaemenid Fiscal Administration”, *VT* 45 (1995), 528-539.

44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1800년대 초 발견된 ‘1/4 세겔 예후드 주화’ 이후 최근까지의 이 주화에 대한 연구사는 다음에 잘 개관되어 있다. David Hendin, *Guide to Biblical Coins*, 5<sup>th</sup> edition (New York: Amphora, 2010), 113-136.

45 Hendin, 윗글 (2013), 257.

46 윗글, 257-259.

화가 한 게라(‘올빼미’ 주화)와 반 게라(‘페르시아 왕’ 주화)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안한다. 납세자들은 이 주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반 세겔(12게라)을 지불했다.<sup>47</sup>

클레터(Kletter)는 ‘1세겔 = 24게라’가 표준 세겔 체계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구약성서에 언급된 ‘20게라’는 서기관의 실수이거나 다른 세겔 표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48</sup> 그러나 이것은 오경의 네 군데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과 더군다나 포로기(혹은 그 이후)의 기록인 에스겔 45장에서도 ‘20게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기관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른 대안으로 우리는 그리스의 오볼/테트라드라크마 무게 비율에 비추어 이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예후드 주화가 그리스 주화 체계에 맞추어 1:24 비율을 따랐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16.5g인 테트라드라크마와 11.33g인 예후드 세겔의 무게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과, 그러므로 굳이 예후드의 주화 체계가 이 비율을 따라야만 할 당위성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바벨로니아의 시클루(*sheqel* = 세겔)/기루(*giru* = 게라)의 비율이 1:24인 것에도 마찬가지로의 논리가 대응될 수 있다. 바벨로니아의 시클루는 세겔과 달리 8.4g이었기 때문이다.<sup>49</sup>

성경의 증언인 1:20 세겔/게라 체계가 포로기 이전의 기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페르시아시기의 예후드 주화가 1:24 비율로 발견되는 것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 비추어 해석해 볼 여지가 생긴다. 느헤미야는 당대에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성전세를 1/3세겔로 책

47 Ronen, 윗글, 124.

48 Kletter, 윗글, 101.

49 R. B. Y. Scott, “Weights and Measures of the Bible”, *The Biblical Archaeologist* 22(2) (1959), 34.

정하는데, 한 세겔을 20게라로 나누면 1/3세겔(=6.6666...게라)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문헌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예 불과하지만, 느헤미아가 1/3세겔 성전세를 위해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 1:24의 새로운 게라 체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1/3세겔은 8 게라가 된다).

로넨은 페르시아 통치 말기에는 중앙 권력이 약했고, 여러 국가가 더 큰 자치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후드와 사마리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 주화를 자체적인 무게 체계에 맞추어 주조하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고 평한다.<sup>50</sup> 그는 예후드 외부에서는 이 주화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예후드 주화가 페니키아 주화처럼 국제 무역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는데, 이렇게 볼 때 비전통적인 무게 시스템이 예후드에서 사용된 이유가 잘 설명된다고 주장했다.<sup>51</sup> 그러나 로넨의 연구 이후로 예후드 지역 밖에서도 예후드 주화가 발견되었다.<sup>52</sup> 이로 미루어 보아, 예후드 주화는 비스만의 주장처럼 단순히 성지순례용의 기념주화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화폐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후드 외에서 이 주화가 자주 발견되지 않는 것은 주화들을 녹여서 새로 주화를 주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sup>53</sup> 앞서 살펴 보았듯이 예후드 지역의 세겔 단위가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독특한 무게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후드 주화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

50 Ronen, 윗글, 125.

51 윗글, 126.

52 Ariel은 출처가 있는 예후드 주화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언급된 장소 중 세 곳인 Mt. Gerizim, Horbat 'Etri, Tell Gamma는 페르시아 시대의 예후드 속주를 넘어 첫 번째는 북쪽에, 나머지는 서쪽에 속한다. D. T. Ariel, "The Coins from the Surveys and Excavations of Caves in the Northern Judean Desert", *Atiqot* 41(2) (2002), 287-294, 특히 287-288.

53 Hendin, 윗글 (2010), 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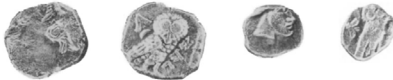
황의 변화, 즉 화폐 가치가 사회 내에서 안정화 되어 가는 과정을 일면 보여주기도 하지만, 알트만이 애써 부정한 것과는 달리, 어떠한 형태로든 페르시아기의 제2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성전의 재건/유지, 이를 둘러싼 당대의 종교-사회상에 예후드 주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3. 예후드 주화의 문양과 명각의 특징

예후드 주화의 무게가 드라마 체계가 아니라 세겔 무게 단위를 따른다는 것과, 성전세인 반 세겔 혹은 1/3세겔을 낼 수 있는 무게 단위로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당시에 예후드 주화와 성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예후드 계라의 무게에 대한 로넨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로넨은 앞서 언급했듯이, 페르시아시기 예후드 주화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sup>54</sup> 특별히 64개의 “올빼미” 주화와 82개의 “페르시아 왕” 주화를 분석하여 전자는

54 **I. Under Persian rule (539-332 BCE):**

A. Coins that imitate Athenian issues.



Obv: Head of Athena. Rev: Owl standing; on the left, olive twig; on the right, paleo-Hebrew inscription *yhd* (*yehud*). Actual size 7 mm.  
 Obv: Male head. Rev: Owl standing; on the left, lily flower (a Jewish symbol) replaces the olive twig; on the right, parts of paleo-Hebrew inscription *yhd*. Actual size 7 mm.

B. Coins depicting an owl, falcon, lily, or a portrait of a Persian king.



Obv: Lily flower. Rev: Falcon; on the right, paleo-Hebrew inscription *yhd*. Actual size 6 mm. Meshorer 1989.  
 Obv: Persian king wearing a crown. Rev: Falcon with paleo-Hebrew inscription *yhd*. Actual size 6 mm. Meshorer 1990/91.

C. Coins inscribed (*yhzayh hphh*), depicting a head and an owl.



Obv: Head facing to the front.  
 Rev: Owl standing; paleo-Hebrew inscription *yhzayh hphh*. Actual size 8 mm. Meshorer 1989.

Ronen, 윗글, 123.

평균 무게가 0.48g이고, 후자는 평균 무게가 0.26g(올빼미 주화무게의 반절)임을 밝혔다.<sup>55</sup>

세겔은 24개의 작은 단위, 즉 게라로 나누어졌다. 제1성전 말, 세겔의 무게는 11.4g, 게라 0.475g으로, 올빼미 주화의 평균 무게(0.48g)와 거의 같다. 따라서 우리는 후기 페르시아 통치 기간 동안 *yhd* 주화가 “올빼미” 게라와 “페르시아 왕” 게라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안한다. 납세자들은 이 주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반 세겔(12게라)을 지불했다.<sup>56</sup>

로넨의 예후드 주화 분류상 세 번째 종류는 명각이 있는 것들이다. 로넨은 이 주화를 페르시아시기 후기로 분류한 반면, 헨딘은 마케도니아 시기(BCE 333-302년)로 분류하고 있다.<sup>57</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리케(Anne Lykke)는 이 주화들이 페르시아시기 말에 대제사장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할 무렵의 증거라고 해석한다.<sup>58</sup> 이 주화 그룹이 제사장정치 발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화들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리케가 총독과 대제사장을 동일시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는 BCE 4세기 말의 한 예후드 주화의 명각인 *yhzqyb phhb*(예히츠키야 하페하)에서 예헤츠키야를 총독(*phb*)이자 대제사장인 인물로 보았다.<sup>59</sup>

55 윗글, 122.

56 윗글, 124.

57 Hendin, 윗글, 132-133.

58 Anne Lykke, “Coins and Coinages in the Context of Ancient Greek Sanctuaries: Jerusalem - a Case Study from the Fringe of the Greek World”, *Eine neue Prägung: Innovationspotentiale von Münzen in der griechisch-römischen Antike* 102 (2016), 117.

59



© Israel Museum Jerusalem. Inv.no. IM 92.5.14228

www.kci.go.kr

그러나 필자가 각주 25에 수록해 둔 크로스의 ‘페르시아기 대제사장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예히츠키야’에 대응되는 대제사장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sup>60</sup> 다만, 이것과 비슷한 시기의 한 예후드 주화에 등장하는 명각인 *yohanan hakohen*(요하난 하코헨)의 ‘요하난’은 4세기말의 대제사장의 이름과 일치한다.<sup>61</sup> 이로 미루어 볼 때, 총독과 대제사장이 4세기 말에 이미 하나의 지위였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본 논고의 논지상 중요한 점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후드 주화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즉, 예후드 주화가 성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 시기에 성전이 예후드의 경제에 있어서 다소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또 다른 증거는 무게가 1/4 세겔인 예후드 주화의 등장이다. 헨딘의 분류를 따르자면 1045번인, 유명한 ‘수레에 탄 야훼’ 주화<sup>62</sup>와 1049번 주화가 그 예인데, 이 주화들은

60 기틀러(Gitler)와 로버(Lorber)는 페르시아 시대부터 마케도니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히츠키야 주화 연대기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Haim Gitler and C. Lorber, “A New Chronology for the Yehizkiyah Coins of Judah”, *SNR* 87 (2008), 61-82.

61



© Israel Museum Jerusalem. Inv.no. IM 8.408.790

62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이 주화에 그려진 소위 ‘수레에 탄 야훼’ 문양은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지만, 기틀러(Gitler), 탈(Tal), 헨딘이 이미 잘 설명한 바와 같이 예후드 지역이 아닌 블레셋 가자(Gaza)에서 주조된 것이므로 야훼 신앙의 핵심 계명인 십계명 제2계명 위배 여부와의 연관성은 다소 모호하다 할 수 있다. Hendin, *윳글* (2010), 127; Hendin, *윳글* (2013), 251-252; 기틀러와 다른 많은 학자들은 예후드 주화의 최초 주조가 블레셋에서 일어

4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재건 노력 이후 성전의 중요성이 예후드 내에서 강화되었다고 본다면, 이 주화들은 성전세가 다시 1/2세겔로 되돌아갔음(또는 성전세가 1/3세겔에서 1/2세겔로 인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예후드 주화의 도상학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헨딘의 분류를 따르자면 1061번과 1062번 주화들이다.<sup>63</sup> 1045번과 달리 이 주화들은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야훼 신앙과 관련된 문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귀 모양을 담고 있는 1061번 주화는 ‘들으시는 야훼’를 상징하는 ‘쉐마 주화’로 유명하고, 1062번 주화의 빨나팔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명절의 중요한 상징이다. 다른 주화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백합(lily)도 유대교의 중요한 상징이지만,<sup>64</sup> 주로 사용된 문양이 그리스의 아테나(Athena) 여신의 얼굴이나 페르시아 왕의 얼굴임을 기억해 본다면, 이러한 종교적 문양들이 예후드 주화에 나타나는 것은 야훼 신앙이 주화의 주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났다고 지적하는데, 귀환 초기에 예후드에는 제대로 된 재정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Haim Gitler, "The Earliest Coin of Judah", *INR* 6 (2011), 21-33; Hendin, *윳글* (2013), 257.

63



Hendin, *윳글* (2010), 131.

64 <https://www.jewishencyclopedia.com/articles/9987-lily>; Ronen, *윳글*, 122-123.

#### 4. 나가며: 페르시아 시기 예루살렘 성전의 정치-종교적 상황

알트만은 그리심산의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서,<sup>65</sup> 사마리아 성전의 연대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4세기 후반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시기인 5세기 중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66</sup>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야훼 신앙의 헤게모니를 두고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유는 양쪽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심 성전은 정경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라-느헤미야에서 그려지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정경의 의도적인 무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와 같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헌금을 그리심으로 보낼지 예루살렘으로 보낼지 의논하였는데,<sup>67</sup>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귀환 후 초기 시점부터 예후드 공동체의 경제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만한 여건이 야훼 신앙의 기반 위에 갖추어져 있었음을 방증한다.

필자는 이 시기 예루살렘 성전의 지위가 후대로 가면서 상승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성전세에 있다는 주장을 예후드 주화의 무게, 문양, 명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알트만이 이 시기 성전의 경제적 역할을 평가 절하한 것과는 반대로 상당수의 물질문화(material culture)의 증거들은 반대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후드 주화들은 페르시아 시대 초기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성전을 둘러싼 정

---

65 Yitzhak Magen, "The Dating of the First Phase of the Samaritan Temple on Mount Gerizim in Light of the Archaeological Evidence", O. Lipschits/G. N. Knoppers/R. Albetz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University Park, US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157-212; idem, "Bells, Pendants, Snakes & Stones: A Samaritan temple to the Lord on Mt. Gerizim", *BAR* 36(6) (2010), <https://www.baslibrary.org/biblical-archaeology-review/36/6/2>.

66 Altmann, 윗글, 150-155.

67 Josephus, Ant. 12:7-10; 13:74-79; Altmann, 윗글, 152.

치적 상황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밀덴버그(Mildenberg)의 선구자적인 작업 이래로,<sup>68</sup> 예후드 주화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권위를 얻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필자는 그 동안 학자들이 간과해온 세겔/게라 무게 체계가 문헌학적으로는 1:20이지만 고고학적으로는 1:24인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것의 하나로써, 매우 추정적이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전세를 1/3세겔로 정한 것으로부터 연원했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는 명각이 있는 예후드 주화들을 크로스가 재구성한 대제사장의 명단에 비추어 해석해 보았다. 이 주화들의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불일치는 필자의 작업을 통해 다소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화들은, 학자들이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듯이, 후대의 제사장정치(hierocracy)로 발전해가고 있었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대의 주화들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문양들이 아닌, 야훼 신앙의 전통을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교적 문양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탐구하였다. 이것은 주화의 주조에 성전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미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야훼 신앙은 귀환 초기의 혼란을 다소 극복하고 예후드 공동체 내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전은 예후드 주화에 기반한 성전세를 통해 예후드 공동체 내에서 점차 정치적·종교적 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

68 Leo Mildenberg, "Yehud: A Preliminary Study of the Provincial Coinage of Judaea", O. Mørkholm/N. Waggoner (eds.), *Greek Numismatics and Archaeology: Essays in Honor of Margaret Thompson* (Wetteren: NR, 1979), 183-196.

## 참고문헌

- 강후구,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4권 2호 (2018년), 202-225.
- 박해령, “고고학적 증거로 본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형성”, 『구약논단』 13권 4호 (2007년), 147-169.
- Albertz, Rainer,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원제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2* (Göttingen: V&R, 1992).
- \_\_\_\_\_,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배희숙 옮김), (CH북스, 2006). 원제 Rainer Albertz, *Die Exilszeit vor 6. Jahrhundert v. Chr* (Kohlhammer, 2001).
- Altmann, Peter, *Economics in Persian-Period Biblical Texts: Their Interactions with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Persian Period and Earlier Biblical Traditions* (FAT 109; Tübingen: Mohr Siebeck, 2016).
- Ariel, D. T., “The Coins from the Surveys and Excavations of Caves in the Northern Judean Desert”, *Atiqot* 41(2) (2002), 281-304.
- Bedford, Peter R., *Temple Restoration in Early Achaemenid Judah* (JSJSup 65; Leiden: Brill, 2001).
- \_\_\_\_\_, “Temple funding and priestly authority in Achaemenid Judah”, *Exile and return* (2015), 336-351.
- \_\_\_\_\_, “The Economic Role of the Jerusalem Temple in Achaemenid Judah: Comparative Perspectives”, M. Bar-Anbar/D. Rom-Shiloni/E. Tov/N. Wazana(eds.), *Shai le-Sara Japhet: Studies in the Bible, its Exegesis and Language* (Bialik Institute: Jerusalem, 2007), 3-20. [https://www.academia.edu/5422941/3\\_The\\_Economic\\_Role\\_of\\_the\\_Jerusalem\\_Temple\\_in\\_Achaemenid\\_Judah\\_Comparative\\_Perspectives](https://www.academia.edu/5422941/3_The_Economic_Role_of_the_Jerusalem_Temple_in_Achaemenid_Judah_Comparative_Perspectives)
- Blenkinsopp, J., “Temple and Society in Achaemenid Judah”, P. R. Davies(ed.), *Second Temple Studies, Vol. 1: Persian Period* (JSOTSup 1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22-55.
- Bremer, Johannes, *Wo Gott sich auf die Armen einlässt: Der sozio-ökonomische Hintergrund der achämenidischen Provinz Yehud und seine Implikationen für die Armentheologie des Psalters* (BBB 174; Göttingen: V&R, 2016).
- Choi, Jiseung, “The Theologies of the Poor in the Psalter” (PhD Dissertation; Aberdeen University, 2022).
- Cross, Frank Moore, “A Reconstruction of the Judean Restoration”, *JBL* 94(1) (1975),

4-18.

- Gitler, Haim, "The Earliest Coin of Judah", *INR* 6 (2011), 21-33.
- Gitler, Haim/C. Lorber, "A New Chronology for the Yehizkiyah Coins of Judah", *SNR* 87 (2008), 61-82.
- Hendin, David, *Guide to Biblical Coins*, 5th edition (New York: Amphora, 2010).
- \_\_\_\_\_, "Current Viewpoints on Ancient Jewish Coinage: A Bibliographic essay," *CBR* 11(2) (2013), 246-301.
- Kletter, Raz, *Economic Keystones The Weight System of the Kingdom of Judah* (JSOTSup 27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Knight, Douglas, 「고대 이스라엘 문화」 (임미영 옮김), (CLC, 2014). 원저 Douglas A. Knight, *Life in Biblical Israel* (Westminster John Know Press, 2001).
- Lykke, Anne, "Coins and Coinages in the Context of Ancient Greek Sanctuaries: Jerusalem - a Case Study from the Fringe of the Greek World", *Eine neue Prägung: Innovationspotentiale von Münzen in der griechisch- römischen Antike* 102 (2016), 109-118.
- Magen, Yitzhak, "Bells, Pendants, Snakes & Stones: A Samaritan temple to the Lord on Mt. Gerizim", *BAR* 36(6) (2010). <https://www.baslibrary.org/biblical-archaeology-review/36/6/2>
- \_\_\_\_\_, "The Dating of the First Phase of the Samaritan Temple on Mount Gerizim in Light of the Archaeological Evidence", O. Lipschits/G. N. Knoppers/R. Albertz(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University Park, US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157-212.
- Microop, Marc Van De, 「고대 근동 역사: BC 3,000년경~BC 323년」 (김구원 옮김), (CLC, 2010). 원저 Marc Van De Mierop,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ca. 3000-323 BC)*, 2nd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7).
- Mildenberg, Leo, "Yehud: A Preliminary Study of the Provincial Coinage of Judaea", O. Mørkholm/N. Waggoner(eds.), *Greek Numismatics and Archaeology: Essays in Honor of Margaret Thompson* (Wetteren: NR, 1979), 183-196.
- Otto, Eckart, *Deuteronomium 12-34: Erster Teilband* (HThKAT; Herder, 2016).
- Polanyi, Karl, *The Livelihood of Man*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 Renger, J., "Institutional, Communal, and Individual Ownership or Possession of Arable Land in Ancient Mesopotamia from the End of the Fourth to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B.C.", *Chicago-Kent Law Review* 71 (1995), 308-318.

- Ronen, Yigal, "The Weight Standards of the Judean Coinage in the Late Persian and Early Ptolemaic Period", *Near Eastern Archaeology* 61(2) (1998).
- Schaper, Joachim, *Media and Monotheism: Presence, Representation, and Abstraction in Ancient Judah* (ORA 33; Tübingen: Mohr Siebeck, 2019).
- \_\_\_\_\_, "‘Real Abstraction’ and the Origins of Intellectual Abstraction in Ancient Mesopotamia: Ancient Economic History as a Key to the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Marx’s Labor Theory of Value", J. Renn/M. Schemmel(eds.), *Culture and Cognition: Essays in Honor of Peter Damerow*, 67-74. <http://mprl-series.mpg.de/proceedings/11/>
- \_\_\_\_\_, "The Jerusalem Temple as an Instrument of the Achaemenid Fiscal Administration", *VT* 45 (1995), 528-539.
- Scott, R. B. Y., "Weights and Measures of the Bible", *BA* 22(2) (1959), 21-40.
- Weinberg, Joel, *Citizen-Temple Community* (Daniel L. Smith-Christopher, trans.), (JSOTSup 151;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Wyssmann, Patric, "The Coinage Imagery of Samaria and Judah in the Late Persian Period", Christian Frevel et al.(eds.), *A "Religious Revolution" in Yehûd? The Material Culture of the Persian Period as a Test Case* (Orbis Biblicus Orientalis 267; Göttingen: V&R, 2014), 221-266.
- <https://www.bible.ca/coins/Jesus-coins-of-the-bible-Persian-Empire-539-333BC.htm>
- <https://www.jewishencyclopedia.com/articles/9987-lily>

검색어

페르시아 시기, 예후드 동전,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정치, 예후드 공동체

[ ABSTRACT ]

**Whose Likeness and Inscription Is This? (Matt. 22:20): Reconstruct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the Temple in Jerusalem during the Persian Period through a Study of the Weight, Patterns, and Inscriptions of the Yehud Coins**

Jiseung Choi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The political, religious, and social situation in Jerusalem during the Persian period (539-333 BCE) remains largely obscure and uncertain, primarily relying on Old Testament accounts. Additionally, the scarcity of archaeological evidence detailing conditions within and around Yehud, which was under Babylonian and Persian vassalage, poses challenges in reconstructing the social context of one of the most pivotal events in Israel's religious history during this era: the return of captives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Given the current limitations on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the Temple Mount in Jerusalem, Yehud coins offer crucial insights into the social landscape of the period. Although these coins are relatively scarce, an examination of their weights, designs and inscriptions by period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Jerusalem Temple in Persian Yehud and the evolving power dynamics centered around the Temple.

While Yehud co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Hendin reports a total of 41 types found to date. In a pioneering study, Ronen identified three

www.kci.go.kr

primary categories of Persian-era Yehudite coinage: (1) coins stylized after Athenian currency; (2) coins featuring Hebrew symbols or portraits of Persian kings; and (3) coins displaying the face, name inscription of the governor of the Yehud region (Peḥah) on the obverse side, and owl emblem on the reverse side.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have also been explored in the research of scholars such as Peter Bedford, Peter Altmann, Joachim Schaper, and others. Building upon these prior studies, this research aims to reexamine temporal shifts in weight, design, and imprint of Yehud coins. Specifically, it will investigate how this chronological sequence reveals their connection to the historical narrative found in biblical texts and emphasize the extra-biblical insights provided by Yehud coins concerning the society of the time, particularly the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s surrounding the Temple in Jerusalem.

key words

Persian period, Yehud coins, Jerusalem Temple, Hiercracy, Yehud community

투고일 : 2023년 10월 08일

심사일 : 2023년 10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1월 02일

www.kci.go.kr